< Abstract >

This research is due to know the transformation after Physical Therapist (PT) was educated the 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 (CBR) at the strong point by Public Health Center (PHC) of the CBR. It was the education of physical therapist of strong point by PHC of the CBR from April 17 to April 29 of 2000 in National Rehabilitation Center.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Questionnaire educated 39 peoples.

First, male and female are same rate, average age, 33 years old. In the position, regular position 86.3%, irregular position 13.2%. Second, the 76.3% was only working PHC one PT, the main patients were 73.7% of chronic degeneration and over 65 years old who are treated, they are treating 60.5% under 20 person in each day. Third, We asked three Questionnaire, these are, first, need CBR education, second, participating of the PT of the CBR projects, third, suggesting the CBR the another in the PHC. The most of 97.4% was answered the positive. 89.5% agreed that they can offer physical therapy to handicapped man without responsibility. And all of these answered 100% that they want to offer the physical therapy when they meet the handicapped. Are you can aviable to assess the part of handicapped they answered 71.1%, to therapeutic exercise 52.6%, to transfer and family education 47.4%, to gait training and family education 55.3%. In the welfare policy, introduce job and rehabilitation information side, having answer 44.7%. It was negativ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lso is it possible for them to educate for the another medical staffs and volunteers is PHC. It was 52.6%. In Conclusion, needs and participant's rate was high all the people but it was the less in professional physical therapy.
Ⅰ. 서 론


Ⅱ.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 남: 여 각각 19명(50.0%). 평균 연령은 33세, 직급은 의료기술 8급 18명(47.4%), 의료 기술 9급 11명(28.9%), 보건직 9급 3명(7.9%), 일용 직이 5명(13.2%), 의료기술 7급이 각 1명(2.6%)으로 정규직이 88.6%, 비정규직이 13.2%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 33명(86.8%), 미혼 5명(13.2%)이고, 교육 정도는 전문대졸 24명(63.2%), 대졸 8명(21.1%), 대학재 학 3명(7.9%), 대학원졸 2명(5.3%)이었다. 임상에서 근무한 총 기간은 5년이상 26명(68.5%), 1년이상~5년 미만 10명(26.4%), 1년 미만 2명(5.3%)이었다. 보건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5년이상 26명(68.4%), 1년이상~5년 미만 10명(26.4%), 1년 미만 2명(5.3%)이었다 (표1).

<table>
<thead>
<tr>
<th>항목</th>
<th>빈도</th>
<th>심 수</th>
<th>백분율</th>
</tr>
</thead>
<tbody>
<tr>
<td>직급</td>
<td>의료기술 8급</td>
<td>18</td>
<td>47.4</td>
</tr>
<tr>
<td></td>
<td>의료기술 9급</td>
<td>11</td>
<td>28.9</td>
</tr>
<tr>
<td></td>
<td>보건직 9급</td>
<td>3</td>
<td>7.9</td>
</tr>
<tr>
<td></td>
<td>의료기술 7급</td>
<td>1</td>
<td>2.6</td>
</tr>
<tr>
<td>임상에서 근무한 총 기간</td>
<td>5년이상</td>
<td>26</td>
<td>68.5</td>
</tr>
<tr>
<td></td>
<td>1년이상~5년미만</td>
<td>10</td>
<td>26.4</td>
</tr>
<tr>
<td></td>
<td>1년미만</td>
<td>2</td>
<td>5.3</td>
</tr>
<tr>
<td>보건소에서 근무한 총 기간</td>
<td>5년이상</td>
<td>26</td>
<td>68.4</td>
</tr>
<tr>
<td></td>
<td>1년이상~5년미만</td>
<td>10</td>
<td>26.4</td>
</tr>
<tr>
<td></td>
<td>1년미만</td>
<td>1</td>
<td>2.6</td>
</tr>
</tbody>
</table>

- 492 -
2. 보건소의 일반적인 특성

보건소에 근무하는 폴리치료사의 수는 1명이 29명 (76.3%), 2명이 7명(18.4%), 3명 이상이 2명(5.3%)이고 주된 치료 대상은 65세이상 만성질환성 질환자가 28명(73.7%), 근골격계 질환자가 4명(10.5%), 일반통 중환자가 3명(7.9%), 신경계 질환자가 1명(2.6%)이었다. 일일 치료환자 수는 20명 미만이 23명(60.5%), 20명 이상~30명 미만이 12명(31.6%), 30명이상이 3명 (7.9%)이었다(표 2).

<table>
<thead>
<tr>
<th>분 험</th>
<th>항 목</th>
<th>실 수</th>
<th>백 분 류</th>
</tr>
</thead>
<tbody>
<tr>
<td>폴리치료사 수</td>
<td>1명</td>
<td>29</td>
<td>76.3</td>
</tr>
<tr>
<td></td>
<td>2명</td>
<td>7</td>
<td>18.4</td>
</tr>
<tr>
<td></td>
<td>3명 이상</td>
<td>2</td>
<td>5.3</td>
</tr>
<tr>
<td>치료대상</td>
<td>65세이상 만성질환성환자</td>
<td>28</td>
<td>73.7</td>
</tr>
<tr>
<td></td>
<td>근골격계질환환자</td>
<td>4</td>
<td>10.5</td>
</tr>
<tr>
<td></td>
<td>일반통중환자</td>
<td>3</td>
<td>7.9</td>
</tr>
<tr>
<td></td>
<td>신경계질환환자</td>
<td>1</td>
<td>2.6</td>
</tr>
<tr>
<td>일일치료환자수</td>
<td>20명 미만</td>
<td>23</td>
<td>60.5</td>
</tr>
<tr>
<td></td>
<td>20명 이상~30명 미만</td>
<td>12</td>
<td>31.6</td>
</tr>
<tr>
<td></td>
<td>30명 이상</td>
<td>3</td>
<td>7.9</td>
</tr>
</tbody>
</table>

3.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인식 변화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 '필요한 사업이다' 37명(97.4%), '그저 그렇다' 1명 (2.6%),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서 폴리치료사 참여에 대해 '참여해야 한다' 37명(97.4%), '그저 그렇다' 1명 (2.6%)이었다. 다른 보건소 폴리치료사에게도 지역사회 중심재활 사업을 하되도 의견을 하였으나에 대해 '연장하겠 다' 37명(97.4%), '그저 그렇다' 1명(2.6%)이었다. 장애인에게 무엇이 폴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 34명(89.5%), '보통이다' 3명(7.9%), '아니다' 1명(2.6%)이었다. 장애인을 보면 폴리치료를 제공하고 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에 대해 응답자 모두 '그렇다' 하고 대답하였다. 각 장에 유형에 따라 평가할 수 있기에 대해 '그렇다' 27명(71.1%), '보통이다' 9명(23.7%), '아니다' 2명(5.3%)이었다. 장애유형에 따른 운동 치료와 이동 방법 및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 다' 28명(52.6%), '보통이다' 6명(15.8%), '아니다' 4명 (10.5%)이었다. 장애유형에 따른 보행 방법 및 보호자 교육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29명(55.3%), '보통 이다' 5명(13.2%), '아니다' 4명(10.5%)이었다. 복지 정책과 취업알선기관등 재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에 대해 '그렇다' 21명(44.7%), '보통이다' 6명(15.8%), '아니다' 11명(22.9%)로 사회복지 출연의 서비스에서 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보건소를 다른 의료 요원과 자원봉사자를 교육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렇다' 29명(52.6%), '보통이다' 6명(15.8%), '아니다' 3명 (7.9%)이었다(표 3).
표 3. 지역사회중심재활교육이 받은 후 변화

<table>
<thead>
<tr>
<th>문 항</th>
<th>그렇다</th>
<th>보통이다</th>
<th>아니냐</th>
</tr>
</thead>
<tbody>
<tr>
<td>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필요성</td>
<td>37(97.4)</td>
<td>1(2.6)</td>
<td>-</td>
</tr>
<tr>
<td>지역사회중심재활에서 물리치료사의 참여</td>
<td>37(97.4)</td>
<td>1(2.6)</td>
<td>-</td>
</tr>
<tr>
<td>다른 보건소에 전전하였느냐</td>
<td>37(97.4)</td>
<td>1(2.6)</td>
<td>-</td>
</tr>
<tr>
<td>다른 보건소에 전전하였느냐</td>
<td>37(97.4)</td>
<td>1(2.6)</td>
<td>-</td>
</tr>
<tr>
<td>장애인에게 부담감없이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가</td>
<td>34(89.5)</td>
<td>3(7.9)</td>
<td>1(2.6)</td>
</tr>
<tr>
<td>장애인을 보면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가</td>
<td>38(100.0)</td>
<td>-</td>
<td>-</td>
</tr>
<tr>
<td>장애인에 따라 평가할 수 있나</td>
<td>27(71.1)</td>
<td>9(23.7)</td>
<td>2(5.3)</td>
</tr>
<tr>
<td>장애유형에 따른 운동치료 실시할 수 있나</td>
<td>28(52.6)</td>
<td>6(15.8)</td>
<td>4(10.5)</td>
</tr>
<tr>
<td>장애유형에 따른 이동방법 및 보호자 교육할 수 있나</td>
<td>28(54.7)</td>
<td>6(15.8)</td>
<td>4(10.5)</td>
</tr>
<tr>
<td>장애유형에 따른 화장방법 및 보호자 교육할 수 있나</td>
<td>29(55.3)</td>
<td>5(13.2)</td>
<td>4(10.5)</td>
</tr>
<tr>
<td>복지정책, 취업알선기관 정책 내용을 제공할 수 있나</td>
<td>21(44.7)</td>
<td>6(15.8)</td>
<td>11(28.9)</td>
</tr>
<tr>
<td>보건소내 다른 의료요원과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킬 수 있나</td>
<td>29(52.6)</td>
<td>6(15.8)</td>
<td>3(7.9)</td>
</tr>
</tbody>
</table>

### 2. 결론

이 연구는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가정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대상은 2000년 4월 17일부터 4월 29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근거 보건소 물리치료사 교육을 받은 4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된 39회의 자료를 통계처리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성년 남녀 각각 19명이고 평균 연령은 33세, 직급은 정규직 86.8%, 비정규직 13.2%였다.

둘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 수는 1명이 29명 (76.3%)이었고, 주요 치료 대상은 65세이상 만성 흡혈성질환자 28명 (73.7%), 하루에 치료하는 환자수는 20명이하가 23명 (60.5%)이었다.

셋째, 지역사회중심재활 사업에 관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필요성과 물리치료사의 참여, 다른 보건소에도 전달하였는데는 각각 37명 (97.4%)으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적극적인 대담을 하였다. 장애인에게 부담감 없이 물리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는 34명 (89.5%)이 그렇다고 대담하였고, 장애인을 보면 물리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고에 대해서는 응답자 모두 그렇다고 대담하였다. 장애 유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27명 (71.1%), 장애 유형에 따른 운동 치료 실시에 대해 28명 (52.6%), 장애 유형에 따른 이동방법 및 보호자 교육에 대해 28명 (49.4%), 장애 유형에 따른 화장방법 및 보호자 교육에 대해 29명 (55.3%)이라고 대답하였다. 복지정책, 취업알선기관 정책 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21명 (44.7%)이라고 대답하였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약간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다. 보건소내 다른 의료요원과 자원봉사자들 교육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29명 (52.6%)이라고 대답하였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도는 대체 융합가 모두 높았으나, 전문적인 물리치료 영역에서는 낮았다.

<참고문헌>

김진문, 홍완성, 백성일 : 서울시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회중심재활에 대한 인식, 대한물리치료학회 제5권 1호, 1998.
김진문, 정재훈 : 경기도 보건소 물리치료사들의 지역사


WHO / WPRO: Regional Workshop on training of Community Health and Welfare workers in Rehabilitation and Disability Prevention, Bacolod City, Philippines: 1-25 January, 1984